

# 쫓겨진 평화당... 광주·전남 정가도 '요동'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왼쪽 세번째)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안정치 워크숍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안정치연대 탈당계 오늘 처리... 일부 무소속행 차치단체장·시도당 당직자·당원 탈당 도미노 예상

민주평화당 내 제3지대 신당 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대안정치)가 당에 탈당계를 제출하며, 처리 시점으로 제시한 16일이 다가오면서 광주·전남 정가도 술렁이고 있다.

대안정치 소속 국회의원들이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민주평화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지역위원회도 사실상 조직이 쪼개졌고, 일반 당원들의 탈당도 시작됐다.

특히 탈당을 선언한 일부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무소속행을 선언하면서 각 지역위원회는 지역민의 여론을 살피는데 분주하다. 이를 토대로 탈당 후 일부 지역위원회는 대안정치와 무소속 등으로 분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15일 민주평화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최근 광주지역 국회의원 4명의 탈당 선언 후 당원 100여명이 탈당했고, 16일 지역 국회의원의 최종 탈당 여부가 결정되면 원외 지역위원장과 핵심 당직자들도 동반 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지역 민주평화당 당원이 최대 1만 80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당원 탈당은 지역 국회의원의 탈당이 확정된 16일 이후 가시화될 전망이다.

또 광주지역 민주평화당 3명의 원외위원장, 7명의 기초의회 의원들의 탈당 여부도 장병완·천정배·최경환·김경진 국회의원의 탈당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도 민주평화당의 국회의원

탈당 선언 이후 원외 지역위원장의 탈당이 시작됐다.

앞서 지난 14일 대안정치에 합류하기 위해 전국 원외위원장 26여명이 탈당을 선언했다.

광주지역 한 원외위원장은 "지난 11일 광주지역 원외위원장과 고문단, 기초의원, 핵심당원 등 100여명이 탈당을 결의했다"면서 "16일 국회의원 탈당이 결정되면 핵심당원 등과 뜻을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분간 당원 탈당 폭은 그리 크지 않고, 대안정치의 향방이 정해지면 과거 '집단 탈당 후 집단 입당' 형태로 국민의 당에서 민주평화당으로 옷을 갈아입었던 방식으로 일반 당원 탈당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김경진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 행을 선언한 것처럼 광주·전남지역 민주평화당

비당권파가 대안정치와 무소속으로 갈라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민주평화당 광주시당 한 관계자는 "일부 당원 탈당이 시작됐지만 대규모 탈당은 향후 창당이나 합당 등이 결정된 뒤 이뤄질 것"이라며 "최근 지역위원장의 지역구 방문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여론에 따라 향후 행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대안정치에 몸담는 것보다 무소속 출마가 훨씬 유리하다는 지역 여론이 강할 경우, 탈당 후 무소속을 선택하는 정치인의 수도 늘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지역 여론'이 광주·전남 지역 민주평화당의 탈당 폭과 행선지 등을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중 민주평화당 소속인 명현관 해남군수, 송기근 고흥군수의 탈당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방패 vs 창' 달아오르는 청문 정국

여 '조국 사노맹' 색깔론 비판...야 '위장 전입' 의혹 추가

장관·장관급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광복절 휴일인 15일에도 이어지며 인사청문 정국이 달아오르고 있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용 흡집 내기가 아닌 자질 검증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대대적인 청문회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전날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청문회요청안 제출을 계기로 여야 간 공방 지점들이 더해지면서 청문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제1 타깃'으로 버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새로운 의혹들도 제기돼 검증과 정에서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고됐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철통 엄호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 후보자에 대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 연루 논란을 제기한 것을 '해독은 색깔론'으로 비판하며 정책 검증에 집중하는 청문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정준숙 원내대변인은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상식적인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한다"며 "뜨집을 잡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를 퍼뜨리며 후보자를 인격적으로 모욕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후보자 7명에 대한 검증 준

비에 박차를 가했다. 한국당이 특히 '집중 타깃'으로 지목한 조 후보자와 한상혁 후보자를 향한 공세 준비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조 후보자와 한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드러낼 여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실시간 정보공유 등 청문위원 간 협업도 펼쳐지는 분위기다.

인사청문회가 이달 말 줄줄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국당은 두 후보자 청문회 날짜를 나머지 후보자들의 청문회 일정과 떨어뜨려 공세 효과를 최대한 거두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국당 법무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국 청문회는 다른 청문회보다 늦은 9월 초에 여는 방안으로 여당과 협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에 최대한 화력을 쏟아부어 부적격성을 강조한 뒤 이어지는 9월 중순의 '추석 법상'에 조 후보자 청문회 이슈를 올려서 결국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와 한 후보자는 물론 '부실 학회' 발표 의혹이 불거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부각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단 한 명의 후보자도 허투루 검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극일·평화·번영... 한목소리 염원

### 여야 74주년 광복절 논평

제74주년 광복절인 15일 여야는 일제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염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제2의 독립운동 정신'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는 집락과 굴종의 역사를 호해와 평화의 역사로 바꿔내는 세기적 전환을 지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과거사를 빌미로 경제 침략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역사적 과오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시작된 일본 경제침략에 맞서야 한다"며 "독립운동은 못했거나 불매운동은 한다"는 시민적 저항에 힘입어 결연한 의지로 일본 아베 정부의 반역사적, 반경제적 조치를 분쇄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도 이날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기적의 대한민국이 정부 실책으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경제 파탄과 안

보 불안이라는 위기의 대한민국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던 그 날처럼 오늘을 변곡점으로 대한민국은 새길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일본은 역사의 진실을 직시하고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이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같은 추가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선조들이 74년 전 각고의 노력과 희생으로 광복을 이루었듯 우리는 일본의 경제 도발을 물리치고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역사를 잊고 경제 도발을 감행한 일본 아베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오현주 대변인은 "일본이 강제동원 등 식민 지배의 역사를 부정하고 경제 도발을 감행한 것은 제2의 침략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 예결위 간사에 전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신임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재선의 전철철 의원을 내정했다.

전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을 비롯한 20대 국회 3년차 예결위원 임기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와 함께 종료된 데 따른 것으로서, 전 의원을 포함한 예결위원 인선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 원내대표가 의원간 경쟁이 치열한 예결위 간사에 '전철' (전문재인) 핵심인 전 의원을 내정한 것을 두고 친문파의 연대 강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 의원을 비롯한 친문 사조직인 부영이 모임은 지난 5월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 원내대표를 지지해 이 원내대표 당선에 일조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달에는 역시 부영이 모임 일원이 것으로 알려진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장으로 선임했다. /연합뉴스

## 민주 "‘원 코리아’ 미래 제시"... 한국당 "말잔치"

### 문 대통령 8·15 경축사 반응

여야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제74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 대해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희망찬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공허한 말 잔치'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경제를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 광복의 의미임을 분명히 한 경축사"라고 말했다.

특히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에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원 코리아(One Korea)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원칙과 대의로만 여겨졌던 통일의 과업을 통시적인 목표로 뚜렷이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러 "일본의 경제보복과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도약의 발판으로 일거에 전환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역량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낸 경축사"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결국 말의 선찬으로 끝난 허무한 경축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의 경제 인식 역시 '북한과의 평화경제로 일본을 뛰어넘자'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의 황당한 해법을 고스란히 되풀이했다"며 "일부일초가 타들어 가는 경제 상황을 타개할 현실적 대책에 국민은 무마라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경축사에서 당면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은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정신 구호

의 나열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에 국민은 불응표가 먼저 스쳐 간다"며 "대한민국이 지금 문 대통령에 의해 '마구 흔들리는 나라'가 된 것 아니냐는 물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큰 틀의 경축사 메시지에 동의를 한다"면서도 "지금 한일, 남북, 한미, 한중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지 그 비전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자강의 길을 모색하면서도 동아시아 연대의 시선을 놓치지 않은 힘 있는 경축사"라면서도 "평화공동체를 이기기 위해서 그 출발은 '사발'이 되어야 하며, 경제기조의 우경화는 경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가치 높음.
- 토지**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병원** 광주 광산구 삼가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 높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 경매 추천 물건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 : 645㎡(195.1평) 건물 : 1296.18㎡(392.1평) 지하1층 지상6층 **감정가 : 14억5천3백만원 최저가 : (56%) 8억1천4백만원**
- 숙박시설**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토지 : 2042.2㎡(617.8평) 건물 : 2735.49㎡(827.5평) 지하1층지상5층 **감정가 : 24억4천5백8십만원 최저가 : (36%) 8억7천6백6십만원**
- 근린시설** 광주 서구 광천동 650-193 외2필지 토지 : 1747㎡(528.5평) 건물 : 3169.12㎡(958.78평) 지하1층 지상7층 **감정가 : 40억6천2백5십만원 최저가 : (70%) 28억4천4백만원**
- 공장** 곡성군 삼기면 경악리 토지 : 88181㎡(26674.8평), 건물 : 15264.64㎡(4617.6평) 지하1층지상3층 **감정가 : 124억3천8백7십만원 최저가 : (29%) 35억6천6백5십만원**
- 창고** 광주 남구 서동 토지 : 396㎡(119.8평) 건물 : 239.15㎡(72.3평) **감정가 : 5억8백7십만원 최저가 : (70%) 3억5천6백만원**
- 다가구(원룸)** 광주 북구 풍향동 767번지 토지 : 227㎡(68.7평) 건물 : 749.02㎡(226.6평)지하1층 지상3층 **감정가 : 6억7천7백만원 최저가 : 6억7천7백만원**
- 아파트** 광주 동구 학동 삼익세라믹 63평형 **감정가 : 2억8천6백만원 최저가 : 2억8천6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